

지역 소식통

정읍시, 돌발해충 방제 총력... 농가 피해 최소화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과수에 큰 피해를 주는 돌발해충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 방제 지도에 나섰다.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등의 돌발해충은 농작물의 잎과 줄기에서 즙액을 빨아 생육을 저해하며, 배설물로 과일의 상품성을 떨어뜨려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특히 최근에는 돌발해충뿐만 아니라 미국한물나방이 활연수의 잎을 갉아 먹으며 피해를 주고 있어, 도로변 가로수나 뽕나무 방제에도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이 해충들이 산란을 시작하는 시기에 맞춰 10월 31일까지 집중 방제 기간을 설정하고 방제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특히 지난 9월 30일에는 정읍 고속도로 휴게소(하행선) 인근 산림과 입안면 시립묘역 주변 산림지에서 산림녹지과와 협력해 공동 방제를 실시한 바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장애인식개선 플래시몹 캠페인 개최

정읍시는 오는 12일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플래시몹 앤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곰두리스포츠허브(수성1로 64-12)에서 진행된다.

곰두리스포츠허브를 알고 있니?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캠페인은 플래시몹 18개 부스와 무료나눔터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착한 소비와 나눔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 인디밴드 공연, 마술쇼 이동형 시네마존 등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장애 이해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특히, 보완대책 의사소통 AAC 체험, 장애인 스포츠 체험, 장애 이해 영상 시청 및 퀴즈 등 다양한 장애인식 개선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곰소젓갈축제 성료

'곰소의 재발견, 누구나 즐기는 젓갈' ... 1만4000여명 방문

젓갈의 명산지 부안 곰소에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곰소젓갈발효 식품센터 앞 특설 행사장에서 '곰소의 재발견, 누구나 즐기는 젓갈'이라는 주제로 40여개 프로그램 속에 1만 4000여명의 군민과 관광객이 부안 곰소 젓갈축제장을 방문하였다.



개막행사에는 권악현 부안군수, 이원택 국회의원, 박병래 부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전복도 의회 지역 기관단체장,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참여한 가운데 위원장의 개막선언과 함께 축제의 개막을 알렸다.

이번 축제에서는 색다른 변화를 시도하여 방문객들에게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을 선사하고자 하였다. 개막행사는 곰소젓갈 요리로 조선의 제일 셰프가 되었다는 '조선셰프 한상궁' 등 색다른 뮤지컬 공연을 선보였다.

주요 행사로는 곰소젓갈의 전통성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국내 1호 젓갈 소믈리에 강지영 대표와 함께는

제와 곰소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홍보하며, 축제의 즐거움과 매혹적인 자연을 만끽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하였다.

또한 젓갈협회에서는 축제기간 동안 젓갈과 액젓 20% 특별한 판매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젓갈을 구매할 수 있는 축제장을 만들어 주었다.

축제 먹거리의 새로운 시도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하여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를 위하여 플라스틱 용기 재사용을 통해 ESG를 실천하는 축제를 만들었다.

향토음식 먹거리, 전주대 젊은 셰프들의 퓨전음식, 군 특화소스 품평회, 한돈 무료나눔 시사회 가마솥 햅쌀밥과 곰소젓갈 등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일회용품이 아닌 플라스틱 용기 사용으로 한층 더 관광객들에게 질 높은 먹거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는 지역 내 우물 3곳에 관리대상 우물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이는 정읍(井邑)이라는 지역 명칭의 기원이 된 우물을 보존하고 그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역사 · 문화 보존에 한 걸음 더

정읍시, 정해마을 우물 등 3곳에 관리표지판 설치

정읍시는 지역 내 우물 3곳에 관리대상 우물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정읍(井邑)이라는 지역 명칭의 기원이 된 우물을 보존하고 그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앞서 시는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의를 통해 지역에 있는 300여개의 우물 중 정해마을 우물, 동학농민혁명군 우물, 산외면 선녀약수터, 빈시암 우물을 관리 대상 우물로 지정했다. 이중 빈시암 우물을 제외한 3곳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

이번 안내표지판 설치의 정읍의 역사적 자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시민들과 방문객들이 그 가치를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빈시암 우물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소유자와 협의를 마무리하고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상철 동학문화재과장은 "정읍의 문화유산인 우물들을 통해 시민들에게 지역의 역사를 알리고 향토자원을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 우물들을 보존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정읍시 우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제51회 고창모양성제', 9일 거리퍼레이드로 시작

5일간 고창읍성 일원서 '은고산: 옛 것에 MZ를 엮다' 를 슬로건으로 펼쳐

'제51회 고창모양성제'가 9일 부터 13일까지 5일간 고창읍성 일원에서 '은고산: 옛 것에 MZ를 엮다'를 슬로건으로 펼쳐진다.

9일 오후에는 군민 1000여명이 참여하는 거리퍼레이드로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자신들의 마을을 가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내는 '우리 읍면의 신(Scene)'과 관광객과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플래시몹을 통해 흥겨운 한마당을 만들어낸다.

모양성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답성놀이인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머리에 돌을 이고 성을 도는 주간 답성놀이 참여자들이 모양성의 경관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또한 주무대 광장에서는 5개 지역농협의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이 색색의 한복을 입고 펼쳐는 강강술래 경연은 높고 맑은 가을 하늘과 어울려 한복의 그림을 만들어 낸다.

특히 KBS전국노래자랑이 12일 고창군 찾아가모양성제를 더욱 풍성하고 다채롭게 만들어 줄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색적인 힐링 프로그램인 '방패라기 대회', '모양 도화서', '모양철학관' 등 젊은 세대 감성에 맞춘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모양성제는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축제를 위하여 대화용기 사용으로 일

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물가인정과 친절한 봉사를 통한 바가지요금 없는 축제, 철저한 안전관리계획과 현장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없는 축제로 관광객에게 즐거운 축제 경험을 제공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올해 모양성제는 천만 관광객도시 고창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고창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고창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도록 알차게 구성하였다"며 "많은 분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고창을 방문해서 풍요로운 가을날의 여유와 정취를 느끼며,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군민의견 11월 5일까지 접수

부안군의회(박병래 의장)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군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의견접수를 실시한다.

이번 의견접수는 부안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군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노

력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부안군의회는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9일간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부안군의 각종 정책과 사업의 추진 상황 예산 집행 및 행정 운영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박병래 의장은 "군민들의 참여가 곧 부안군의 발전을 이끄는 힘"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접수된 의견은 관련 부서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군정 발전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내년 신규시책 · 국가예산 발굴 보고회 개최

부안군은 지난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최영두 부군수 주재 '2025년 신규시책 및 2026년~2027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2차 대면평가)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부안군 미래 100년 발전을 향한 대도약'이라는 기치 아래, 정부 정책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안군의 발전방향 모색하며 국민 체감도가 높은 참신한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 앞서 25개 관·과·소의 적극적인 참여로 총 176건(신규시책 115건, 국가예산 61건)의 사업이 발굴되었으며, 소관 부서 국장님들의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60건의 사업이 선정됐다.

이날 2차 대면 평가에서는 신규시책 및 국가예산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

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민생 정책과 미래 성장 동력 사업 등 20여 건의 우수 사업이 선정되었다.

최영두 부군수는 "지역발전과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특히,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역 발전을 견인할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매우 중요한 만큼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부안군은 오는 15일 부안군수 주재로 최종 보고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위원과 전북연구원을 평가위원으로 모시고 심도 있게 사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